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Made in Suncheon 동남사 사진기 전시관 열림식 개최

동남사진기에 대한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우리나라 최초 사진기 제작공업사인 옛 '동남사'가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동남사 사진기 전시관' 열림식이 동남사사진기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최근 중앙동 랜드마크(연자로 7) 지하 1층에서 개최됐다.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동남사'는 1950년 전후 국내 최초로 사진기를 제작·판매한 곳이다.

동남사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각종 사진기자재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50년대 중반 국산정리산업박람회 출품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당시 사진기를 제작하는 기계공업사는 '동남사'가 전국에서 유일했다고 알려져 있다.

'동남사'에 대한 관련 자료는 안타깝게도 1976년 대형화재로 소실

되었지만 창업주의 아들 김종식 동남사사진기보존위원회 회장이 기억을 토대로 '동남사' 제품과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동남사 재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남사 사진기 복원과 보존을 위한 단체도 결성됐다.

이번 열림식은 동남사 사진기에 대한 뜻있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인 채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던 그때의 사진이나 사진기를 찾아내 사진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공간은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문화유산인 동남사진기를 연결시킨 것으로 주민이 제안하고 순천시에

서 지원해 만들어진 사진·역사문화 공간이다.

이 곳 전시관에는 대한민국과 순천의 사진 역사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해 놓았고 옛 동남사 사진기를 비롯한 근·현대 사진기를 전시하여 체험하도록 꾸며졌다.

김종식 동남사사진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이 곳에서 대한민국 사진과 관련된 포럼, 고증확보, 사진 체험프로그램 등 사진문화 발전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유일의 사진 역사·문화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진 애호가들 뿐 아니라 사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며 특히 원도 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광양시 '남도 바닷길 관광설명회' 성료

서울·경기 여행사와 관광 관련 관계자 200여 명 대거 참석



광양시는 최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여수, 순천, 보성과 공동 주관한 '남도 바닷길 관광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 '남도 바닷길' 공동 사업의 일환으

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 지역 여행사와 관광 관련 관계자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성과를 이뤘다.

'바다와 사람이 만나는 남도 바닷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

회에 참매실농원, 노랭이골, 와인동굴, 해달별 천문대, 하조나라, 호텔락희 등 광양시의 주요 관광사업체가 참여해 열띤 홍보를 펼쳤다. 참석한 여행업계는 향후 실질적인 관광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공동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광양시는 여수, 순천, 보성과 함께 상반기 중 부산, 대구 등 경상권역에서 관광 설명회를 2회 정도 가질 계획이다.

광양시 이화영 관광과장은 "광양은 산, 바다, 강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관광재질소, 평양항 등 산업자원이 공존해 있으나 이를 잘 엮어내지 못해 잘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공동 관광설명회를 통해 상호 우위자원을 코소화해 올리는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도 관광객으로 들쭉거리는 광경을 보고 싶다"며 많은 방문을 호소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녹차, 미세먼지와 독감 한 방에 해결

녹차 탄닌 성분, 미세먼지 체외 배출에 탁월

지난해에 이어 올 겨울도 미세먼지와 독감으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이 계속 되면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중금속 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수직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최근 흥역과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에 대한 불안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지난 하반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난 하반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난 하반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난 하반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난 하반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30%이상 감소하였으며, 중금속과 납의 경우 50~70%, 카드뮴은 40%이상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뮴은 체내에 미량만 흡수돼도 대사 장애를 일으키고 체내에 축적돼 적혈구 감소, 뇌 손상, 발암 및 천식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녹차는 항암·항산화 성분인 카테킨과 중금속 배출 기능이 탁월한 탄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에 축적된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등의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며, 카테킨의 주요 성분(ECGG)은 독감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에 흡착하는 것을 막아 열증을 억제한다.

또한,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체내 중금속과 결합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금속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등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인다.

미세먼지에는 카드뮴, 납, 비소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코나 기도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체내에 축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내에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체외로 중금속을 배출해 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질병을 막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성군 차원에유통과장은 "독감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외 후 손을 반드시 씻고, 가정에서는 따뜻한 차를 자주 음용해야 한다."면서 "보성군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교, 경로당, 다중 이용 장소 등에서 '군민 차 마시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군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3기 서포터즈 활동 개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월드마린센터에서 공사 SNS 기자단인 '제3기 YGPA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온라인 접수와 심사를 거쳐 총 6명이 선 발됐으며, 항만·해운·물류 분야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홍보하는 역

활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문화 이슈 등의 콘텐츠 등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서포터즈를 선발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서포터즈의 참신하고 생생한 정보의 공사 공식 SNS 채널인 블로

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병춘 부사장(경영본부장)은 "공사 SNS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공사와 여수광양항 관련 정보를 접하고 확인할 수 있다"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공사와 국민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영광군, 딸기 신상품 조기보급 설명회 개최

영광군은 최근 관내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신상품 조기보급 확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영광군농업기술센터의 딸기 신상품 실증시험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농가에 올해 진행할 딸기 신상품 보급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금실', '베리퀸' 등 센터 내 실증시험포에 재배한 신상품 시식회를 비롯하여 각각의 품종 특성 및 재배 상 유의점을 상세하게 전달하였다.

이번 사업은 '금실'과 '베리퀸' 등 국내에서 새로 육종한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보다 빠르게 보급하여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소개된 '금실'과 '베리퀸'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단단한 특성으로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대형공사장 화재 및 재난예방훈련

순천시는 최근 대형공사장인 예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관기관 및 시공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대형 화재에 대비한 재난예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겨울철 건설공사장 용접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사전 재난예방 차원에서 순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업체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진행되었다.

또 실전 현장감과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형 공사장인 가칭) 예코에듀체험센터 건설 현장에서 실시하고 시공사의 현장근로자, 대

형건설공사장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따라서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가연성 자재로 인화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건설공사장 방화대원 편제에 의한 자체 소방장비를 활용해 초기 진압과 현장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 등 실전적 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재진화 훈련에 이어 순천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안전관리교육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